

2018년 서울특별시 제4차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

- ◆ 일시 : 2018. 7. 20. (금) 10:00
-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 ◆ 참석자 (9명)
 - 위 원 : 동산분과 위원 8인 및 기념물분과 위원 1인
 - 배석자 : 문화재연구 팀장, 담당 주무관
- ◆ 심의안건 (총 39건)
 - 서울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 2건
 - 국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 2건
 - 서울시 지정문화재 지정 심의 : 2건
 - 서울시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 7건
 - 국가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 : 6건
 - 서울시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심의 : 20건

(개의)

○ ○○○ 위원장

이제 성원이 됐기 때문에 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안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관악구청 등 관계자 입장)

낙성대 삼층석탑 이게 현상변경이죠? 관악구에서 나오셨습니까?

○ 관악구청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구 문화체육과 ○○○라고 하고요. 관악구에서 이번에 심의 신청한 낙성대 삼층석탑에 대한 건입니다. 낙성대 삼층석탑은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현재는 1973년에 조성된 낙성대 공원 안에 강감찬의 영정이 있는 사당이 있어요. 그 사당의 경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호구역설정을 위해서 한 번 문화재위원님들이 조사를 나오셨을 때 바닥환경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지적을 해주셔서 전체적인 석탑의 상태가 불량하고 표면 오염이 심해서 그것까지 같이 현상변경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설계는 전문적인 저희 정비업체에서 실시설계를 해주셨고 그것에 대한 석탑의 현황이나 앞으로의 보수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재 설계자

안녕하세요. 발표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황조사를 통해서 삼층석탑을 보았을 때 삼층석탑의 사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석재가 약간 바스라지는 듯한 풍화현상을 보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흑화오염과 지의류 오염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금 조금씩 균열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방향으로 오염 부위에 대한 세척, 그리고 풍화현상에 대한 강화처리, 그리고 균열 부위에 대한 수지처리, 그리고 석탑 하부 쪽에 잔디와 잡초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제거하고 마사토를 까는 부분을 보수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수이력으로 1972년도에 문화재 지정이 되고, 1974년도에 지금의 낙성대공원 안으로 이전된 후에는 별다른 보수기록이 공식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배치도를 보시면 서쪽으로 보이시는 이 부분이 낙성대공원이고요. 서쪽에서부터 진입을 해서 안국문을 통해서 좌로 보이는 게 낙성대 삼층석탑, 그리고 사적비가 보이고 사당으로 이어지는 그런 배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으로 보시면, 이 사진은 사당에서 낙성대공원 쪽으로 본 사진인데요. 우측에 보이는 이것이 석탑이고요. 좌측에 보이는 것이 사적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은 각각의 입면을 사진으로 찍은 모습입니다. 이것은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면으로 본 석탑의 현황인데요. 방위를 참고해서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 북측과 동측 그리고 서측에 주로 지의류와 흑화오염이 발견되었고요. 그리고 옥개석 상부, 탑신석 상부 연석 부분에 주로 오염이 발견되

었습니다.

단면으로 보시면 양쪽 측면에 보이는 게 스테인리스 난간인데요. 이 난간의 하부 지반선과 석탑의 하부 지반선 레벨을 보시면 오히려 석탑 안쪽으로 경사가 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탑이 기단석의 아래쪽 하부 면을 보시면 기단석 주변에 잔디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어서 이것이 습윤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남측면에 대한 입면입니다. 주로 옥개석의 그늘진 부분에 대해서 흑화오염이 발견되었고요. 군데군데 주변에 일부 균열된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동측면 입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흑화오염이 많이 발견되었고요. 옥개석 상부 그리고 일부 박락된 부분에 대해서 지의류가 발견되었고 박락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북측면에 대해서는 연석과 옥개석 상부, 그리고 그늘진 부분에서 지의류와 흑화오염이 많이 발견되었고요. 3층 옥개석과 기단석에서 균열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서측면에 대해서는 주로 옥개석, 그늘진 부분에 흑화오염이 많이 발견되었고요. 기단석에 대해서는 북측에 해당하는 부분에 흑화오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전체적으로 석탑 석재의 풍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처리가 시급하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층석탑에 대한 보수계획으로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오염부위에 대한 세척과 암석 강화처리, 균열부위에 대한 수지처리를 계획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하부에 잔디와 잡초가 자라 있는 부분들을 제거하고 여기를 마사토로 채워서 습윤 환경을 좀 더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 위원장

6페이지에 기단 부분하고 지면하고 조금 낮은 부분이 있잖아요. 비가 오면 그쪽으로 다 고이잖아. 그것을 관악구에서, 이번 공사에는 수평레벨 맞추는 게 안 들어가 있죠?

○ 문화재 설계자

예.

○ ○○○ 위원장

저게 근본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석탑보존처리를 하지만 저쪽에...

○ 관악구

내년 예산으로 저희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 ○○○ 위원장

저 부분을 레벨 맞추기가 엄청나게 어려울 거라고. 다른 면들을 다 까야 하잖아, 그 넓은 면을. 그래서 토목 쪽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 번 강구를 하십시오.

○ 관악구

예.

○ ○○○ 위원

혹시 여기에 배수로는 안 되어 있나요?

○ 관악구

예. 배수로는 현재 안 되어 있고요.

○ ○○○ 위원

배수로를 먼저 해야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나요? 레벨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이번에 맞추면서 같이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 관악구

이번에는 석탑의 표면에 대한 부분 처리를 중심으로 하되, 급하게 마사토만 채우고요. 내년에 예산을 그 부분을 신청하면,

○ ○○○ 위원

하면 거기 또 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문화재 설계자

사실 저희가 마사토를 채운다는 얘기가, 비가 내리거나 하면 고이거나 잔디가 머금게 되는데, 마사토를 2배 정도 두텁게 채움으로써 빗물이 밑으로 빠지게 되는 효과를 주고자 합니다.

○ ○○○ 위원

빠지긴 하지만 어쨌든 배수로는 없어서 빠지지는 않잖아요.

○ ○○○ 위원장

저것을 나중에 잔디랑 잡풀들 있지 않습니까. 저것을 다 깎아낼 건지. 풀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만, 예를 들어서 60cm 정도만 할 건지. 그게 왜냐면 화강암으로 짝 갈아놔서 마사토만 해버리면 경관이 또 안 좋아져. 그러니까 녹색을 가장자리에는 탑 주변 외에는 조금 남겨두는 게 어떨지 그것 한 번 확인해보세요.

○ 문화재 설계자

다 하지는 않았고요.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 정도에 대해서 마사토를 채우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 위원장

그것은 하여튼 나중에 자문할 때 보고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삭막한 것 같아서.

○ 문화재 설계자

예.

○ ○○○ 위원

레벨 맞추고 배수로 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지금 순서가 바뀐 것 같아서. 그게 먼저 되고 이게 가야 하지 않을까요?

○ 관악구

사실은 현장조사를 나오셨을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올해 서울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서 이 부분을 먼저 처리하고,

배수로 설치하는 5,000~1억 사이의 돈이 들 것이라고 기본적인 견적은 받아 났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위원장

금년에는 보존처리하고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생각해보시죠. 다른 의견 없으시면,

○ ○○○ 위원

한 가지만 더. 혹시 지금 여기 흑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세척을 해도 또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그 원인 같은 것은 알 수 없나요?

○ 문화재 설계자

흑화오염에 대한 원인은 도시의 대기오염하고 수분에 대한 것으로 고착화된 현상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세척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다 없애지는 못할 겁니다. 지금보다 많이 완화되는 정도일 거고요.

○ ○○○ 위원장

저것을 기본적으로 나는 백답을 만드는 것은 싫어하니까. 그래서 너무 하얗게 만들지 말고 옛 맛이 살아나게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처리하는 사람에 따라서 각각 철학이 있어서 어느 기준을 갖고 딱 얘기하기는 힘든데, 하여튼 저것을 하고 관악구에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어. 이번 처리하고 난 다음에 모니터링을 꼭 해서 몇 년이 지나니까 지금 처리하기 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오더라 하는 것을 모니터링을 한 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것을 했던 회사보고 돈 조금 주고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왜냐면 몇 년 동안 하자 책임을 져야 하니까.

자, 이상 없으면 허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 위원

동의합니다.

(관악구청 등 관계자 퇴장)

(강북구청 등 관계자 입장)

○ 강북구청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청 문화관광체육과 담당 ○○○입니다.

저희 강북구에서 화계사 아미타괘불도 및 오여래도 보존처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설계서 내용의 변경 건인데요. 지금 설계서상 오여래도 상황형태가 ‘번’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1~2차 자문회의 결과 그리고 소장처의 의견에 따라 ‘병풍’으로 상황형태를 변경하고자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공사 진행업체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 문화재 설계자

안녕하십니까? 한캠문화재보존입니다.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서 내용에 오여래도의 상황형태가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문의견과 소장처의 의견에 따라서 ‘병풍’으로 바꾸고자 하는 심의안건을 올렸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계사 아미타괘불도 및 오여래도 보존처리 공사로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강북구청에서 시행해서 시공은 한캠문화재보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부터 보존처리 공사를 시작하였고, 현재 진행은 2차 자문회의까지 완료하여 배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괘불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여래도는 해체만 하고 상황이 정해지지 않아서 해체 상태로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여래도 및 인로왕보살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여래도 및 인로왕보살도는 괘불과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8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괘불도와 함께 의식용 불화로 사용되었을 오여래도와 인로왕보살도 6폭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화기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나 색 대비나 세부표면 등이 괘불도와 비슷해서, 괘불도가 광서 12년에 조성되었다는 화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슷한 시기 때 조성된 게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는 유물입니다.

○ ○○○ 위원장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지난번에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안)이 ‘병풍’으로 할 거냐 ‘번’으로 할 거냐, 자문회의에서 그 의견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 얘기만 해 주세요. 허가해줄 때 다 얘기가 된 거니까.

○ 문화재 설계자

예. 과업지시 내용에 ‘오여래도와 인로왕보살도의 경우 원형은 번이었으나 현재는 병풍으로 있다. …중략… 상황형태는 원형인 번 형태로 한다’ 이렇게 과업지시 내용이 올라왔었고요.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먼저 이것에 대해서 자문을 1차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원래의 상황형태는 번이나 유물의 상태를 보아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권고한다’ 현 상태가 병풍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소장처와 발주처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1차 때는 말씀이 나와서 저희가 이 자문 이후로 화계사와 협의를 해보았습니다. 거기에서는 ‘번’이라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무조건 병풍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2차 자문회의 때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병풍으로 제작을 하고, 오여래도나 인로왕보살도의 순서만 결정하는 것으로 2차 자문회의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심의 전까지 오게 되었고요.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논문을 여러 개 찾아봤는데, 그중에 하나는 정명희 선생님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 종합해볼 때 오여래도, 칠여래도는 번, 번화와 같은 걸개 그림의 형식으로 혹은 19세기 작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병풍의 형태로 그려져 사용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19~20세기에 병풍 형식으로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결론으로 오여래도와 인로왕보살도의 경우 원래의 상황형태는 사실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시대 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시대 때 병풍 형태로의 유행이 있었고 자문회의 의견과 소장처인 화계사에서 병풍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번보다는 병풍 형태로 가는 게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 ○○○ 위원장

지금 이것을 병풍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 문화재 설계자

예. 맞습니다.

○ ○○○ 위원

오여래도, 칠여래도 같은 것이 수록재라든가 예수재 또는 영산재 같은 그런 의식 의례단에 사용된 불화들인데요. 당시 이런 그림들은 그런 행사가 끝나면 다 태워버려서 그 예가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풍 같은 경우는 이 예를 빼고는 병풍의 예가 남아 있지 않아서 이런 류의 그림들은 무조건 번이니 괘니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논문에서 보셨듯이 당시 병풍들이 의례단에 만들어져서 설치가 된 증거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병풍으로 된 것을 뜯어서 족자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형을 손상시키는 것이라 생각해서, 병풍 자체도 그 당시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풍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자문할 때 세 사람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간척지류연구소에서 설계할 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병풍으로 유지하는 것이,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뜯어서 족자로 만드는 건 얘기도 안 되는 거고.

○ ○○○ 위원장

그러면 그때 설계할 때 간척에서 했던 건가? 그때는 번으로 나왔잖아요.

○ 문화재 설계자

예. 맞습니다.

○ ○○○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형태가 병풍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번으로 돌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번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장황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 ○○○ 위원

그런데 여기 번이라는 판단은 어떻게 내려진 건가요?

○ 문화재 설계자

그때 당시 제가 간책에 통화를 했을 때는 따로 자문을 받은 것 같지는 않
더라고요.

○ ○○○ 위원장

그때 자문을 누가 했지? 설계할 때 자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 문화재 설계자

설계도서에 자문의견서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받았는
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 ○○○ 위원

누가 받았으니까 그렇게 썼지. 번이 아무나 말할 수 있지 않았을 텐데.

○ ○○○ 위원장

왜냐면 설계 자문이 또 있잖아요. 나는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아무리
지금 병풍으로 그 전에서부터 내려왔다고 해도, 이게 원래는 번이었다고
하면 번으로 바꾸는 게 내 생각이야. 그런데 그런 것도 없다 그러면 이
상태로 가야 되는 거죠.

○ ○○○ 위원

아마 번에 대한 역문이나 이런 게 없었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
로는 계속 병풍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번이라기보다는
병풍으로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 ○○○ 위원장

이 선생. 여기 보니까 자문위원이 ○○○ 선생하고 ○○○, ○○○인데 다
전문가들이니까 이것은 전문가 의견대로 하시고, 설계할 때 누가 번으로,
간책에서 자기 임의대로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것만 알아보세요.

○ ○○○ 주무관

그런데 간책이 지금 연락이 될 수 있지가 않다고...

○ 문화재 설계자

그 당시 담당 기술자는 안 되지만 표구 하시는 선생님께서..

○ ○○○ 주무관

확인 안 해보셨나요?

○ 문화재 설계자

통화해봤는데 자문 혹시 받으셨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따로 안 받으셨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장

나중에 그거 확인해서 여기에 보고를 하세요.

○ 문화재 설계자

예.

○ ○○○ 위원

질문이 있는데요. 상주 남장사에 있는 칠여래도는 현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 건가요?

○ ○○○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변의 형식도 있고 병풍의 형식도 있는데 두 개 다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가 병풍 형식으로 되어 있었으니 그냥 병풍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 ○○○ 위원

병풍의 예가 거의 없는데 희귀한 예니까 이것은 보존을 해야죠.

○ ○○○ 위원

사실 대부분은 변으로 되어 있어요. 감로도 같은 것도 그렇고 변으로 되어 있는 게 많은데,

○ ○○○ 위원장

그러면 번으로 가는 게 맞지.

○ ○○○ 위원

아니요. 지금 이게 다 태워버려서 연대가 올라가는 게 없어요. 다 19세기 거고 18세기 것이 딱 하나 있고. 그런데 그것도 2015년에 이것을 진관사에서 재현을 해서 번이고 병풍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옛날 17, 18, 19세기에 어떤지 아무도 몰라요. 다 태워서.

○ ○○○ 위원

감로도에는 다 걸려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얘기한 거거든요. 실물은 남아 있지 않지만 감로도에 걸려 있으니 그 당시에는 번이었을 수도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이 작품은 상황이 병풍으로 되어 있으니 둘 다 가능하니, 현 단계는 이것을 따라가는 게 맞지 않은가 합니다.

○ ○○○ 위원

현재의 유물 상태가 병풍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뜯어서 번으로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풍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위원장

아까 그 얘기는 그렇게 가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내 경우에는 우리가 모르고 저렇게 해놓을 수 있으니, 병풍으로 쉽게 관리하기 위해서요. 원래 번인데. 그런 것이었다면 번으로 가는 게 맞다, 왜냐하면 스미소니언 아니면 세클로 미술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일본 작품들 족자를 전부 유리 케이스에, 액자에 넣어놨다고. 개네들은 그것을 모르고 관리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야. 그런데 일본 사람도 가보고 우리나라 사람도 가보고 관리하기 편하니까 어느 미술관이고 박물관이고 전부 액자로 다 한 거야. 지금 그것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 ○○○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똑같은 게 육군박물관에 깃발 있죠? 사명기라고 하는 모든 깃발을 다 뜯어서 그냥 안에 있는, 사명이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다 액자로 만들었거든요. 그것은 해방 이후에 우리의 잘못된 관행인 거고, 지

금 이 경우는 상황 자체가 아직은 원래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는 그냥 이것대로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 위원

아니, 저는 현재의 상황 상태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상황이 여기 1800몇 십 년이라고 그랬는데 그때의 상황인가요?

○ ○○○ 위원

그때의 상황으로 보여요. 왜냐면 이게 근현대 것이 아니거든요.

○ ○○○ 위원

왜냐하면 이게 인로왕보살하고 세트르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흩어져서 떠 돌아다니는 것을 붙인 게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세트르, 인로왕보살과 같이 세트르 만든 겁니다.

○ ○○○ 위원장

그러면 자문에서 ○○○ 선생님하고 ○○○ 위원, ○○○ 선생이 이런 의견을 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설계를 잘 줘야 해요.

○ ○○○ 위원

유물을 봐야 해요. 유물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 ○○○ 위원장

그러면 이 건은 병풍으로, 자문의견 나온 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강북구청 등 관계자 퇴장)

(성북구청 등 관계자 입장)

성북구에서 오셨죠? 설명하세요.

○ 문화재 설계자

본 용역은 서울 간송미술관 내에 서울 괴산 외사리 승탑하고 문경 오층석

탑 이렇게 보물로 지정된 두 건의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시면 위치는 이렇게 되어 있고, 보수공사 내용은 괴산 외사리 승탑 같은 경우는 세척이나 시공 전에 3D 스캔하고 풍화도와 물성을 조사하는 게 우선적으로 잡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의류 오염이나 이런 세척에 관한 것, 그다음에 석재강화처리 실시하는 것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외사리 승탑 같은 경우에는 귀꽃 부분이 파손되어 있는 상태로, 그 부분을 석재 충전을 해서 접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사리 승탑 주변으로 수목, 식생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정비하고 반경 2m 내외로 해서 마사토 다짐을 지반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문경 오층석탑은 이것도 역시 외사리 승탑과 동일하게 3D 스캔하고 초음파물성조사를 세척하기 전에 먼저 한 다음에 공사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도 식생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습식세척이나 건식세척을 시행하고 그다음 석재강화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탑 같은 경우도 부분 균열이 있고 박리가 있는 상태라서 그 부분에 석재 충전 등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층석탑 우측 하지대석 부분에 균열이 가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석재성형을 해서 보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문내용이고요.

이게 외사리 승탑 현황 사진입니다. 귀꽃 부분에 보시면 균열이 가 있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경 오층석탑. 6번 사진에 보시면 하부에 들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석재성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

여기 보니까 균열 등에 석재강화, 석재강화는 OH-100이 괜찮은데, 균열 부분에 L-30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이걸 아랄다이트 계통으로 하세요. 이 두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 위원

서울 괴산 외사리 승탑에 있는 귀꽃이 떨어져 나간 부분 있잖아요. 옥개 석에 있는. 그것을 만들어서 붙이는 것도 하나요?

○ 문화재 설계자

아니요. 그냥 있는 상태에서 합니다.

○ ○○○ 위원장

그건 괜히 붙여놓으면 이상해져요.

○ ○○○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 뒷부분 쪽에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그것을 영역을 만드나요?

○ 문화재 설계자

2m 정도는 수목 전체를 제거하고 지반도 제거할 예정이고요. 위쪽으로 넘어가 있는 것은 윗부분에 가지치기도 해줄 예정입니다.

○ ○○○ 위원

그러면 아래쪽은 마사토 같은 것으로 하나요?

○ 문화재 설계자

예. 마사토로 지금 일단은 잡고 있습니다.

○ ○○○ 위원

2m는 너무 넓지 않아요?

○ ○○○ 위원장

그쪽 주변에 내가 가봤는데, 가지치기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 주변을 다 치면 또 보기가 흉할 것 같더라고. 주변 환경도 생각을 해야지, 너무 석탑만 보존한다고 해서 주변에 나무도 다 치고 이러면. 그래서 평소에 관리를 잘하면 돼요. 간송박물관에서도 오셨잖아요. 성북구하고, 우리가 처리를 해주면 처리를 해주는 데에서 끝나지 말고, 풀이 자라면 풀도 좀 베어주고 이러면 되는데, 보존처리 다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손을 안 댄다고. 할 때만 주변이 깨끗하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자체에서 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 것까지 어떻게 시에서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난 지금 이거 간송한테 얘기한 거예요. 구에서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처리할 때 이 주변은 항상 풀이 자라지 않도록, 왜냐면 내가 가보니까 그 전에 보존처

리 한 것도 잘 해냈는데 풀이 자라고 그랬더라고. 이런 것은 자체에서 관리하세요.

그러면 이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허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성북구청 등 관계자 퇴장)

○ ○○○ 주무관

현상변경 건은 이것으로 끝이고요. 먼저 서울시 지정문화재 지정 심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제3차 문화재위원회 사전심의 결과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가하다고 의결된 지장사 목조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그리고 서울시 문화재 자료로 의결된 경국대전입니다. 30일간 서울시보에 예고 공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 ○○○ 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지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었죠?

○ ○○○ 주무관

예.

○ ○○○ 위원장

그럼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 주무관

다음은 서울시 지정문화재 사전심의 7건입니다.

먼저 반야바라밀다심경집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 ○○○, ○○○ 위원님께서 조사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 ○○○ 위원

예.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 자료는 옛날에 조명기 박사님께서 소장했다가 그 후손들에게 물려준 문화재로 2016년 11월 17일에 지정신청을 했는데

요. 그때 소장자하고 묘하게 일부는 신청을 앉겠다고 가져갔고 또 이게 그런 그런 사이에서 이것도 신청을 반려한 것인지 서로 미루다가 조금 지체된 내용입니다. 책 자체는 반야심경에 부헌당 소부라는 사람이 집해를 한 책인데요. 좀 특수하게도 이 책은 유가, 도가 이런 관점에서 같이 불가의 불경에다가 주석을 달았다는 점이 조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16세기 조선시대 불교사에서 서산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삼가규감이라든가 삼교규감이라든가 이런 저술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일정한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자료라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1568년에 평안도 백운사 설암에서 일웅이라는 스님이 주관해서 간행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불경경전 중에서 가장 짧은 경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불과 내용이 270여 자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한국 불교의식에서 의례할 때마다 독성되는 경전인데요. 이 경전에다가 집해를 했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권수에는 집해를 했던 소부가 쓴 서문이 붙어 있고요. 권말에는 휴휴암 일여스님의 발문이 또 붙어 있고, 그다음에 간기가 붙어 있어서 이 책의 내력,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증명할 수가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반야심경 집해가 거의 없습니다. 유일한 자료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이 자료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세대학교에 한 점이 있을 정도이고 그 밖에는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개인이나 사찰에서는 아직까지 발견된 사례가 없는 유일한 자료라는 점에서 문화재적,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유형 문화재로서는 충분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되어 지정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라든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 ○○○ 위원장

상태는 전체적으로 깨끗한 것 같아요.

○ ○○○ 위원

예.

○ ○○○ 위원

18쪽 아래 ‘발문 및 간기’에 사인 같은 것도 원래 있던 건가요?

○ ○○○ 위원

그건 원래 소장자인 가지고 계셨던 스님이 자기 사인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회의 자료에 사인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거죠.

○ ○○○ 위원장

예. 그러면 다른 말씀 없으시면 지정 예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 주무관

다음은 운가사 소장 묘법연화경입니다. 이 건도 ○○○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 위원

운가사에 소장된 묘법연화경으로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 신청해온 자료입니다. 이 책은 조선시대에 성달생, 성개 형제가 쓰신 책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차례 복각이 된 것 중에 초본체가 1405년에 간행이 됐고요. 이 책은 1477년에 다시 복각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성달생은 잘 아시다시피 성삼문의 할아버지입니다. 성삼문이 단종 복위운동 관계로 역적의 집안이 되다 보니까 그 관련 자료들이 다 사라져버려 안타까운 창녕 성씨 집안입니다. 서예가로서도 유명한 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분이 써서 간행된 불경들이 10여 종이 됩니다. 그것들이 대부분 다 조선전기 불서로서는 대단히 주목되는 책들인데요. 그 중의 하나를 바탕으로 해서 1477년에 역시 전라북도 완주의 화암사에서 복각한 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자료는 그런 가치는 있는데 후대본이고, 두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책이 전혀 다른 책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지정 불가로 판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 주무관

다음 소미타참서도 ○○○ 선생님께서 설명해주시겠습니다.

○ ○○○ 위원

이 책은 아미타불에 대한 예경, 참회, 염불을 통하여 정토왕생을 기원하는 불교의식집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이 책은 처음 소개되는 자료라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책은 뒤에 간기가 정확해서 만력7년, 1579년에 전라도 나주 덕룡산 쌍계사에서 개판되었다는 정보가 확실한 자료로 판단되고요. 이 자료 중간 중간에 한글로 음역 또는 언해가 되어 있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란 이전의 한글 변천사라든가 불교의식집의 하나라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고요. 현재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 소개되는 자료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시기만 15세기 정도만 되었어도 국가문화재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이것은 16세기 자료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 문화재로 지정해서 보존·관리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자료니까 지정 예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 주무관

다음은 법장사 소장 지장보살본원경입니다.

○ ○○○ 위원

지장경은 불교에서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우리가 절만 가더라도 명부전이다 있는 것으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거기에 근본 성경이 되는 책이 지장경입니다. 지장경은 우리나라에서 한역자가 조금 논란이 되는데요. 이 책은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등이 한문으로 번역한 경전에 해당되고요. 특히 이 책의 특징이 경문 안에 대부분 붓으로 구결을 달아놨는데 이 책은 원래 판각 자체부터 한문구결이 그대로 붙여져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자료이고요. 또 권말에 간기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만력2년, 1574년에 전라도 능성, 지금의 화순이죠. 쌍봉사에서 간행했다는 사실이 분명한 자료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16세기 한문구결 또 우리나라 이두

라든가 이런 국어사 자료로써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표지가 조금 완전하지는 않지만, 복장에서 나온 책으로서는 그나마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데는 별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상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들이 없으시면 지정 예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 주무관

다음은 배자예부운락입니다.

○ ○○○ 위원

배자예부운락이라는 책입니다. 이것은 운서이고요. 기본적으로 한자문화생활권 때는 이 운서가 없으면 글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만 해도 운서가 다수 간행이 된 바가 있는데요. 그중에 배자예부운락권 1~4까지 해당되는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은 그 권수에 보시다시피 오른쪽 면지에 내사기가 붙어 있어서 저 내사기를 통해서 대체로 이 책이 간행된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데요. 저 내사 연대가 1678년입니다. 그래서 그 직전에 간행된 책인데요. 특히 이 책은 그 직전에 무신자라고 하는 금속활자로 간행되어서 이 책을 당시의 사간원 사간이었던 김충에게 내사한 책에 그 상세한 정보가 담겨져 있고 좌측에는 내사할 때 찍은 내사인이 날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책이 완전한 것은 극히 드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책만 해도 상태가 좋고 또 내사본이라는 점에서 시 문화재로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면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예고를 하겠습니다.

○ ○○○ 주무관

다음은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비변사계획도에 대한 심의입니다.

○ ○○○ 위원

비변사계획도는 작년에 경매로 서울시에서 구입한 작품인데요. 계획도는 많이 있습니다만, 비변사계획도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은 현재 알려진 비변사계획도 중에서 제일 연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점은 보통 계획도가 상단에 제목, 중단 그림, 하단 좌목이 되어 있는데 이 작품은 하단 좌목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참 아쉬운데, 그렇지만 다행히 거기 화면 위에 신광한이라는 조선시대 유명한 문신의 시가 적혀 있고, 또 신광한의 문집을 찾아보면 시뿐만 아니라 이 시의 내용을 설명한 글이 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 문집을 찾아서 보고서에 첨부했구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계획도를 그린 경위라든지 이런 것은 이 글에 다 나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서울시 문화재로 가치가 있는 것은 이 비변사가 현재 광화문 기로소 바로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경복궁 광화문이 그려져 있어요. 임진왜란 이전 광화문의 모습이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은 성문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의 창덕궁과 똑같이 바로 성이 없고 지상에서 나무기둥을 세운 중층누각 형태의 광화문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변사의 모습도 안에 앉아 있는 사람까지, 작기는 하지만 상당히 분명하게 그려져 있고 또 광화문에서 종로로 가는, 종로도 일부 그려져 있습니다. 왕래하는 사람도 그려져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점으로 볼 때 이것이 서울시 문화재로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 위원님과 여럿이 그렇게 같이 동의를 했습니다.

○ ○○○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단 좌목이 결실된 것은 어느 시점에 수리할 때 없어진 건가요? 그게 알 수가 없어요?

○ ○○○ 위원

이건 시에서 구입했는데 옥선에 나올 당시 이렇게 나와서 그것은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 ○○○ 위원장

그러면 수리할 때 모르고 그렇게...

○ ○○○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이 작품뿐만 아니고 일본에 있는 조선 전반기 계획도에도 제목하고 그림은 있는데 좌목이 없고 이런 것들이 왕왕 있어요. 기록의 가치를 몰라서 과감하게 잘라버린거죠.

○ ○○○ 위원

예전에는 그림이 있는 부분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밑부분이 있으면 더 안 좋은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 ○○○ 위원

그런 사례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작 시기라든지 제작 동기를 그런 좌목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데 이 작품의 가치는 그 위에 신광한의 글이 그런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확인해 주기 때문에 다소 아쉽지만 그런 점에서는 제작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 ○○○ 위원

경복궁 연구자로서 보면 광화문이라든지 조선전기가 사진들도 없고, 그림 그려져 있는 것도 다 시대가 내려가는데 조선전기를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보물급이에요. 상황 없어도 이 자체로도 경복궁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요.

○ ○○○ 위원

사실은 1606년, 17세기 초의 것들도 다 보물로 지정되거든요. 그것은 좌목이 있으니까.

○ ○○○ 위원

그렇죠. 사실 경복궁하고 북악산 남아 있는 것이 꽤 여러 점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처럼 클로즈업한 것은 없어요. 그것은 멀리서 본 것이고.

○ ○○○ 위원

사진 좀 더 확대 안 됩니까?

○ ○○○ 위원

제가 사진을 좀 더 달라고 그러려고 ○○○ 선생님한테 저희 꼭 필요할 것 같아요.

○ ○○○ 주무관

그런데 저희가 받은 사진으로 봐도 잘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 ○○○ 팀장

찍어서 다시 보내달라고 하겠습니다.

○ ○○○ 위원

경복궁 명종 때 완전 불타고 나서 복원할 때까지는 폐허처럼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들이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 ○○○ 위원

부탁할 때 이 세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 포함해서... 이것은 여러 선생님들이 관심 가지고 활용도가 있을 테니까 박물관에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 ○○○ 주무관

알겠습니다.

○ ○○○ 위원

왜냐면 이것은 건축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일 거거든요.

○ ○○○ 위원

또 여기에서 서울시 학예사는 종각, 종로의 옛날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하던데 그것은 앞으로 조사하기에 따라서..

○ ○○○ 위원

왜 그러냐면 경복궁 광화문에서부터 비변사도 그렇고 종로까지 쪽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조선후기 것과 비교해볼 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 ○○○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정 예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 주무관

예. 다음은 만해 한용운 심우송 병풍에 대한 건이고요. ○○○, ○○○, ○○○ 위원께서 조사에 참석해 주셨는데 ○○○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 위원

만해선사의 심우송 병풍인데요. 이것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송나라 때 활암선사의 심우도 시를 차운한 작품입니다. 만해선사가 1933년 아마 심우장을 마련했고, 1937년 선불교에 이 차운시가 나오는데 아마 지금까지 공개된 작품 중에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두 폭이 송광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폭이 다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유물인 것은 분명하고, 소장내력을 조사해봤는데요. 원래 만해선사의 제자였던 극락암의 경봉스님, 상좌 중에서 법상좌, 속세상좌 전금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소장하고 있는 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인하려고 극락암의 명전스님을 뵈려고 했는데 지금 명전스님이 경주 동대병원에 계신데 안 좋으셔서, 직접 뵈고 자세한 상황을 여쭙 수는 없었는데 소장내력은 확실합니다, 글씨 자체도. 그래서 지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세 분 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 위원

경봉의 상좌가 전금주라고 했는데 그 아들인데 왜 성이 정 씨죠? 전 씨여야 할 것 같은데요.

○ ○○○ 위원

이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보면 전금주 한자로 이렇게 실제 써놓은 것이라서.

○ ○○○ 위원

그럼 아들도 전 씨여야 하잖아요.

○ ○○○ 위원

단순사실인데 한 번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 위원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만해 작품이면 1933년이잖아요. 지금 그동안 우리가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했던 것은 1910년 이전으로 주로 했고, 그다음에 1910년 이후 것은 등록문화재나 다른 것으로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유형문화재로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 ○○○ 팀장

최근에 건축분과에서 심우장이 서울시 기념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적으로 승격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 ○○○ 위원

그런데 유형문화재는 1910년까지만 했고 1933년 것을 유형문화재로 하게 되면 불화라던지 이런 경우 굉장히 확장돼서 지정해야 할 것들이 늘기 때문에,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작품이라 하더라도 1933년이라고 하면 이것은 지금까지의 저희 전례하고는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어서 그럴 때는 등록자료든지 문화재자료라든지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 원칙은 아직 지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 위원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10년까지 우리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해 왔는데 1933년 작품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 위원

장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 위원장

그것은 잘 지적해 주셨는데 ○○○ 위원님이 조사해왔을 때는 가치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그냥 보류할 수는 없고, 다른 쪽으로 옮겨서 할 수

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문화재자료로? 등록문화재로?

○ ○○○ 위원

등록문화재는 국가로 올려야 하는 것이니까 문화재자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 위원

심우송이 맞나요, 심우시가 맞나요? 여기 명칭도 두 군데가 달라서요.

○ ○○○ 주무관

이 자리에서 명칭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 위원

따로 제목은 없나요?

○ ○○○ 위원

거기 보면 차확암심우송운으로 되어 있으니 심우시보다는 심우송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해 한용운 심우송 병풍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장

이 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 ○○○ 위원

예.

○ ○○○ 위원장

1910년 이전 것만 우리가 취급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문화재 자료로 지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 주무관

그럼 명칭은 이대로 만해 한용운 심우송 병풍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입니다. 안중근 유묵 등고자비에 대한 국가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입니다. ○○○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 위원

예. 안중근 유묵의 경우 현재 26점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무조건 신청하면 순서대로 다 정해졌는데, 4~5년 전부터 어떻게 이게 안 의사 유물이라고 하면 무조건 생각지도 않고 다 지정을 해야 하느냐? 이게 문제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2009년 안 의사 의거순국 100주년전 할 때 실제 유묵을 처음으로 다 모았는데 34점 정도 모았고요. 현재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확인되는 게 사진까지 합하면 55~56점 정도 나왔는데 질적 수준이라든지 가치를 좀 더 매겨가면서 지정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 작품의 경우는 그런 일환에서 기존 지정품보다 특별히 뛰어난 점은 없다. 그래서 지정을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안 의사 유물은 워낙 대중들의 관심이 첨예해서 이미 지정된 것도 논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다르게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라 서체를 보고 안진경체다 아니면 또 다른 체다 안 의사가 이런 체를 쓸 수 있느냐? 아주 지역적인 것을 갖고 인터넷에 문화재청에 올리고 하니까 민원인데 제대로 응답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누가 뭐라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손바닥 지장인데 이것을 그러면 조사를 하자, 국과수 같은 데에. 지문 검색만 확실히 하면. 왜냐하면 요즘은 과학검증이 더 중요한 이슈가 되니까요. 안 의사 만 큼은 무조건 지문이 다 있으니까. 이런 기준을 좀 확인해보자고 하는데 국과수에도 이런 것은 수사차원에서는 가능하지만 문화재를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것은 애초에 안 해 준대요.

○ ○○○ 위원장

국과수가 그것을 못 하게끔 되어 있어요.

○ ○○○ 위원

그래서 문화재연구소 이런 곳에서라도 가능한지. 그런데 보통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가서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건데 왜 이렇게 안 하느냐? 객관적인 자료를 안 내놓느냐? 그런 항의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좀 공식화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행정적으로도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 ○○○ 위원

국보나 보물로 기 지정된 경우는 논란의 소지가 너무 많아서 혹시라도 그것을 했을 때 문제가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학적 검증이라고 해서 가끔 하려고 하면 유물 훼손시키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첫 번째는 아마 논란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 ○○○ 위원

그런데 어쨌든 차후 안 의사 유물이 공개될 여지가 꽤 있어요. 지금 일본에 있는 것도 공개 안 된 것이 있고, 국내에도 두 세 개는 아직 공개 안 된 게 있어요.

○ ○○○ 위원

그 경우는 본인들이 한 번 해보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재로 지정하기 전에는 가능한데 지정해놓고 나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 ○○○ 위원장

그런데 그게 국과수에서는 사건사고가 터져야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국과수라는 게 원래 사건이 났을 때 그 사람들이 출동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 ○○○ 위원

그래서 안 의사 100주년 도록에 일부러 지장 찍은 것을 크게 확대해서 보시라고 해놓기는 했는데 이 경우가 지장이 그렇게 선명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지정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견해입니다.

○ ○○○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지정 불가하는 것으로.

○ ○○○ 위원

그런데 이 경우에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문제인데 혹시 서울시 문화재라든지 이럴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 ○○○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정 여부 자체, 서울시든 아니면 국가 지정이든 간에 지정 자체를 하자면 그런 객관적인 검증들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 ○○○ 위원

현재 이 건은 국가 지정문화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논의할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 ○○○ 위원

그것은 맞는데, 여쭙보는 거였고. 최근에는 추사든지 이런 경우도 예전에는 추사 이름만 나오면 다 올라갔는데 근래에는 우월성과 이런 것을 평가해서 아닌 것은 국가문화재로 안 하니까 이것도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 ○○○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경우는 여러 안 의사 작품 중에서도 수준이 그렇게 뛰어난 것은 아니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하셨습니다.

○ ○○○ 위원장

그럼 세 분이나 이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국가로 올리지 않고, 그냥 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성묘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선생님이 오셨기 때문에 뒤의 것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있습니다.

○ ○○○ 주무관

그럼 선성묘비 먼저 심의하겠습니다.

○ ○○○ 위원

현재 저 사진 두 개는 위치가 여기 있다가 도로가 난다고 해서 위치를 100m 정도 떨어진 아파트 입구에 공터가 좀 있어서 성동구청에서 그쪽으로 이전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의 사진을 보시면 두 개의 비석이 있는데요. 오른쪽 것이 선성묘에 설치되어 있는 유림연월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0명 정도의 인원이 있는데 한국 유학사에서 이병도 선생이 정리해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910년대 그 당

시 유림들의 인식을 살피는 데 있어서 역사적인 자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왼쪽 것은 경성 선성묘라고 해서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려고 했던 것인데, 서울에 만든 선성묘에 참여했던 그 당시 사람들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고 그 조직체계에서 어떤 역할들을 맡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직위 같은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 한국유학사의 주요 인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이 선성묘 조직 전체에 대한 학계의 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연구의 뒷받침이 없이 선불리 먼저 지정부터 해놓고 나면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했고요. 또 비석 자체로도 저 돌은 상당히 좋은 돌을 썼거든요. 그래서 돌이 아마, 그 당시 이것을 처음에 기증하신 분의 주장은 후손 되시는 분인데 “고종의 밀명으로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돌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과 관계없이 상당히 재력이 많이 투여된 것이고 이수 부분의 조각들이 쌍용쟁주 형의 도상으로 양쪽이 다 되어 있는데 수법 자체는 얇은 조각을 했지만 아주 화려한 조각 솜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사 쪽으로는 의미가 있는 작품에 해당될 것 같다는 점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성묘 자체를 아직 근대 유학사적으로 정리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학술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계의 연구가 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연구 후에 다시 한 번 등록하는 것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성동구 향토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죠?

○ ○○○ 위원

우리가 독서당 터라고 하면 한남동을 생각하는데 성동구에도 독서당 터가 있어요.

○ ○○○ 위원

길 자체를 성동구에서 독서당길로 해놓은 게 있고요. 그런데 독서당이라고 했던 그 터 자체가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다는

것만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경성 선성묘를 건립할 때 어쨌든 성균관에서 밀려난 조직이기 때문에 도성 안에는 세우지 못하고 성 바깥으로 나와서 과거 유래를 따져서 아마 독서당 근처에 세웠던게 아닌가 추정합니다.

○ ○○○ 위원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거기 1910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911년에 성균관을 폐지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것은 그것보다 조금 늦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연대가 쓰여 있지는 않나요?

○ ○○○ 위원

예. 비석은 다 건립한 연대를 보통 쓰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없어서 그 부분이 가장 걸립니다. 1910년대 후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 ○○○ 위원장

불가하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 ○○○ 주무관

그럼 이 건은 등록은 불가하고, 성동구에 향토문화재로 지정 권고하겠습니다.

○ ○○○ 위원장

그것은 권고만 하고 성동구에 맡기면 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 넘어가겠습니다.

○ ○○○ 주무관

명지대학교 소장 연행화첩입니다. ○○○, ○○○, ○○○ 위원님이 조사 해주셨는데요. ○○○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 위원

이 화첩은 연행화첩이라고 보통 불리는 화첩입니다. 화첩 안에 쓰인 여러 기록과 여러 그림들을 통해서 1760년 11월부터 1761년 4월까지 중국에 파견되었던 동지사행과 관련된 그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런데 이 경우에 이 동지사가 특별했고, 특별한 어떤 임무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동지사와 달리, 사실 연례적으로 파견되었던 사신단 중의 하나인데요. 이렇게 서화첩으로 기록을 남기게 된 연유에 사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당시 동지사가 파견되기 직전에 1760년 11월 2일에 영조가 동지사의 정사 홍계희 이하 삼사에게 다음 해가 특별히 현종 탄강 120주년이기 때문에 이번 동지사는 봉림대군, 즉 효종의 유평처이자 현종의 탄생지인 심양관을 반드시 살펴보고 그것을 그림으로 기록해 오라고 아주 특별한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이런 어명을 내린 사실은 이 연행화첩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승정원일기에서도 기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의 동지사에는 통상적인 사행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사례였다는 것을 여러 가지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이 서화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림과 함께 그런 연유를 기록한 영조의 어명을 담은 어필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별히 심관구지도 왼쪽에 보이는 영조의 어필, 문묘도, 이륜당도, 석고배치도, 역대제왕묘도, 산해관내도, 산해관외도, 배반도, 도설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꽤 대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당시에 장황된 상태도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실려진 이 그림은 이필성이라고 하는 당시 동지사의 수행하원이 그렸다는 것이 확인되었고요. 전형적인 사자관의 서체도 확인할 수 있고 여러 문신들의 글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제작시기, 제작동기 또 작품에 수록된 여러 내용과 그림의 수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영조조 연간에 만들어진 궁중기록화로서는 대표성을 갖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 위원

왜 하필이면 동짓날 파견을 해요?

○ ○○○ 위원

연례적인 사행이 네 번 있었는데 동지사행은 연말에 가서 대개 3월~4월경

에 돌아오는데.

○ ○○○ 위원

정월초하루의 조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 ○○○ 위원

원래 그런 게 있었는데 이 경우는 특별히 가서 현종과 관련된 유적지를 꼭 파악하고 오라는 어명이 있었기 때문에 일상적인 동지사와는 다른 이런 작품들이 만들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 위원

한 가지 궁금한데 그러면 현재 여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역대제왕묘도라든지 문묘도는 다 심양에 있는 것을 하나보죠? 현재 심양에는 이게 없거든요.

○ ○○○ 위원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가서 방문했다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당시의 상태를 시각적으로 기록한 것인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 아까 마지막 산해관내도, 산해관외도 이 장면이 중국에서 산해관을 복원할 때 중국에도 남아 있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 화첩의 이 장면을 보고 복원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참조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이렇게 귀하게 생각될 만한 역사적, 사료적 가치가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 ○○○ 위원

여기도 썼지만 지금 명지대 측에서도 그동안 통칭으로 연행화첩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너무 막연한 명칭이라서 이것을 이번에 지정 신청을 하게 된다면 영조조라든지 그렇게 하나 붙이면 어떨까 합니다.

○ ○○○ 위원

표지에는 아무것도 없죠?

○ ○○○ 위원

없습니다. 지금 표지가 결실이 되어 있어서요.

○ ○○○ 위원

연행화첩이 너무 많기 때문에…

○ ○○○ 위원

네.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이전의 것도 있습니다만, 시기를 이렇게 규정해 놓으면 차별성은 있을 것 같고 그 이외에 다른 명칭을 붙여볼까 했는데 그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것을 동지사 행화첩으로 하면 동지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떤 동지사?’ 이럴 수도 있으니까…

○ ○○○ 위원

영조 36년이면 1760이라고 하는건요?

○ ○○○ 위원

그렇게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 ○○○ 위원

이필성을 넣는 것도 이상하죠?

○ ○○○ 위원

이필성은 여기서 화가로서 물론 의의가 있지만 이 화첩은 워낙 조금 더 더 큰 맥락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 ○○○ 위원

‘영조조’나 ‘영조대’ 이 정도만 넣어줘도…

○ ○○○ 위원

‘대’는 여기서 안 쓰는 것 같고 영조조가 어떤가요.

○ ○○○ 위원

예를 들자면 그 이전에는 명묘조… 그런데 명묘조 이런 게 요즘 감각에는 너무 딱딱해서요.

○ ○○○ 위원

갑자로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예컨대 ‘을묘연행화첩’ 이렇게 하든지.

○ ○○○ 위원

영조갑자연행화첩 이렇게 하면 딱 맞거든요.

○ ○○○ 위원

그런데 영조조까지는 들어가야죠.

○ ○○○ 위원장

그런데 이 제목을 청이 가면 그쪽에서 또 정할텐데, 우리가 지정할 때 바로잡아서 보내야 하나요?

○ ○○○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제안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기초 조사를 했으니까.

○ ○○○ 위원

그게 제일 낫겠네요. 영조갑자 이런 식으로...

○ ○○○ 위원

영조신사연행화첩.

○ ○○○ 위원장

그럼 잠시 5분 동안 토론하시죠.

(정회)

(속개)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국가지정으로 올리는 것으로 하고 명칭은 두 분이서 상의하시는 걸로요.

○ ○○○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영조기사 연행화첩으로 하든지 아니면 영조조 연행화첩으로 하든지 다른 사례를 좀 더 봐서 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국보 지정 건으로 조사하고 있는 기사계첩 같은 것도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거든요.

○ ○○○ 위원장

그래서 지금 명칭 같은 것을 너무 갑자기 정하는 것보다 좀 손보는 게 좋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갖고 두 위원님께서 상의하셔서 정해지면 ○○○ 선생님께 연락을 하세요.

○ ○○○ 위원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영조신사연행화첩, 영조조연행화첩, 연행화첩 중 참고해서 세 가지 중의 하나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 ○○○ 위원장

자, 그러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 주무관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청구영언에 대한 국가 지정문화재 사전 심의입니다. ○○○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 위원

아마 공부하실 때 청구영언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으리라 판단합니다. 바로 그 책입니다. 그 책을 한글박물관에서 수집해서 국가문화재로 신청을 의뢰한 건데요. 김천택이 1728년에 시조 사설, 일명 가곡이죠. 이런 것을 모아서 만든 책이 청구영언입니다. 모두 580수가 수록된 필사본에 해당될 것입니다. 앞에는 서문 한 편하고 본문 68장 그다음에 김천택의 발문이 들어 있고 이정섭의 후발이 포함돼서 모두 7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이미 오래 전에, 1948년에 영인본으로 제작될 만큼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높이 평가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내용에는 한글로 지어진 부분이 상당 부분 들어있어서 조선시대 18세기 무렵의 한글변천사 또 국문학사 어학적인 측면 이런 여러 분야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도 풍부하고요. 또 이 자료가 유일본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재적

가치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장서인들이 몇 개가 낱인이 되어 있는데요. 진하게 보이는 것은 홍문관 이경로 선생님의 장서인이 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 희미하게 되어 있는 것은 김천택의 장서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파거사라는 이런 글이 희미하게 남아 있는 것이 판독이 돼서 이 책은 김천택이 혹시 필사해서 본인이 소장했던 책이 아닐까. 확정은 짓지 못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고 왜냐면 김천택의 다른 필사본이 있으면 그것과 서체 비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정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그런 가능성만 있다. 이런 점에서 어쨌든 조금 시기는 늦기는 하지만 18세기니까요. 국가문화재가 되기에는 시기적으로는 미약하지만 유일한 국어국문학사 쪽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은 국가문화재로 상신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위원들끼리 합의를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국가지정문화재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 위원

궁금해서 여쭙보는데요. 57쪽 권말에 약간 찢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유일본인데 저희가 국어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나요?

○ ○○○ 위원

예.

○ ○○○ 위원

문화재적 가치로서가 아니라 저기 떨어져 있는 부분에 노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연결되는지.

○ ○○○ 위원

그 부분은 발문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 부분은 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 ○○○ 위원장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시죠.

○ ○○○ 주무관

다음은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열녀전입니다.

○ ○○○ 위원

한글박물관에서 최근에 자료를 많이 수집했습니다. 지난번 신청한 게 10건인데요. 그 중에 오늘 두 건만 먼저 발표를 하겠습니다.

고열녀전입니다. 이 열녀전은 중국 한나라 때 아주 유명한 학자인 유향이라는 분이 편찬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정설이지만 한편에서는 위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유향의 열녀전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 중종 38년 1543년에 이 책을 우리나라에서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고 또 저기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도상이 그려져 있죠. 판화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한문과 한글번역과 도상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종 때 편찬한 삼강행실도 형식을 준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한글번역은 신정과 유향이 번역을 했고요. 글씨는 유이손이 썼고 저 그림은 당시 도화사 화원이었던 이상좌라는 분이 그림을 그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비단 국어학뿐만 아니라 도상 측면에서 미술사 또는 국문학사 이런 여러 점에서 의미가 있어서 국가문화재로 가치가 충분한데 다만 아쉬운 것은 전질이 발견됐다면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중의 한 책만, 8권 중에 권사 한 책만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유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가문화재 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문화재로 상신하기로 위원들 간에 합의를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국가지정문화재로 올리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 ○○○ 위원

지금 이 본이 1543년 이전에 출판된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최초이고,

- ○○○ 위원
예. 최초였죠. 1543년.

- ○○○ 위원
원본이죠?

- ○○○ 위원
예. 보시다시피 처음 발견된 책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어디에 숨겨놓고 하나씩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 ○○○ 위원
그림은 몇 개 정도가 남아있나요?

- ○○○ 위원
여기 13점이 있네요.

- ○○○ 위원
사실 이게 원본이고 제작시기도 확실하고 그렇다면 이상좌의 작품으로는 거의 유일한 작품 아닌가요?

- ○○○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판화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경향을 살필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 ○○○ 위원장
저기 결손된 부분에 메움을 했잖아요. 뒤에 통종이로 되어 있는 거죠? 저 부분만 오려서 메워 넣은 겁니까?

- ○○○ 위원
그 부분만 메움이 있습니다.

- ○○○ 위원장
지금 속에 이걸 뒤에 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다 다시 해야지. 책이 두

꺼워지니까.

○ ○○○ 위원

예. 아마 보존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열악한 상태입니다.

○ ○○○ 위원장

그러면 국가지정문화재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 주무관

명칭은 앞에 ‘고’ 자를 붙여서 ‘고열녀전’으로 하는 건가요?

○ ○○○ 위원

한글박물관에서 명칭을 이렇게 해왔어요?

○ ○○○ 주무관

한글박물관에서는 열녀전으로 해왔는데 보고서에 써주시기를 ‘고열녀전’으로 써주셔서요.

○ ○○○ 위원

본문의 판심제가 고열녀전이에요. 60페이지 다섯 번째 줄을 보시면 판심에 있는 것을 보시면 고열녀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목록의 권수제로 해도 고열녀전 목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자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 ○○○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고’자가 들어가야 하겠네요.

○ ○○○ 주무관

그러면 고열녀전으로 하겠습니다.

○ ○○○ 위원장

다음 안건.

○ ○○○ 주무관

그다음 안건은 이담명 승정원사초입니다.

○ ○○○ 위원

명칭은 승정원사초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초를 쓴 사람이 이담명이라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담명 승정원사초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담명이라는 사람은 현종 때 사단이었죠. 그래서 이분이 승정원 가주서를 맡았던 1671년부터 1675년 사이에 작성한 사초에 한정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161책이에요. 이 책이 전부 초서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박물관에서 이것을 다 탈초하고 이 작업이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다량으로 사초가 남아 있는 곳은 없어요. 사초는 그때 제작하면 다 버리기 때문에. 새 초로 해서 다시 종이를 쓴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유일하게 이 책은 대규모로 161책이나 남아 있는 상태여서 어찌 보면 현재까지 한 사람이 이렇게 다량의 사초를 남긴 예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대가 약간 늦기는 하지만 국가문화재로서 충분한 가치는 있다. 그리고 승정원일기의 편성과정을 살필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승정원일기로 나중에 구성이 될 때 어떤 부분이 거기에 채택이 됐다는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 편찬 과정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료다. 그런 점에서 당시 조사한 위원들께서 이것은 국가문화재로 올릴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 위원

현재 이것은 이담명이 쓴 것이기 때문에 ‘이담명 필 승정원사초’로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국가문화재에서 ‘필’을 넣든지 빼든지 ‘화’로 하든지 ‘사’로 하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향후 소위원회에서 한다고는 해도 우선은 ‘필’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야 ‘이담명 필 승정원사초’가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

○ ○○○ 위원

얼마 전에 문화재청 소위원회를 고흥에서 한 번 했는데요. 그때는 앞으로

는 ‘필’을 다 빼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 위원

아직은 결정이 안 돼서요.

○ ○○○ 위원장

여기에 대한 명칭은 조사하신 분들이 갖고 왔기 때문에 이대로 올리고 여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청에서 다시 한 번 하니까요.

○ ○○○ 위원

예. 동의합니다.

○ ○○○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가문화재로 상신하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 ○○○ 팀장

서울시 문화재구역과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심의입니다.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위여서 문화재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10년이 되는 날 그 구역이 주변 환경변화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적정한지, 축소하거나 조정하라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10년이 경과한 20건이 저희 동산분과 대상인데, 작년 6월에 소분과위원외에 박도화, ○○○, ○○○ 위원님을 추천해 주셔서 작년에 현장조사 마쳤습니다. 이중 한 건이 추가로 보호구역을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고 한 건은 다른 보호구역을 조정하다 보니까 지정 면적이 약간 조정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단순오기나 정정하는 건이 18건입니다. 자료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낙성대 삼층석탑입니다. 현재 보호구역이 없는 상황인데, 지금 구청에서 관리도 잘 하고 있는 편이고 담장으로 둘러져 있어서 크게 주변에 개발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문화재 보호구역이 필요하다. 탑 같은 경우는 10~25m까지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현장조사위원들께서 10m 정도는 보호구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른쪽에 보호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문화재 제43호 연령군 이훤 신도비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안에 있는데 청헌당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구역을 건축분과에서 조사해서 보호구역을 지정하다 보니까 이훤 신도비가 보호구역 안에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다시 해보니까 기존에 지정할 때의 면적보다 약간 변동이 있는 건입니다. 당초 17.4㎡였는데 현재 변경된 것은 10.2㎡입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 제41호 화산군 이연 신도비입니다. 이것은 소유자가 변경된 건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증가중앙교회에서 모래내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형문화재 제42호 구영릉 석물은 지번이 변경된 건입니다. 청량리동 산 1-157번지에서 청량리동 204-38번지로 지번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순 오기 건입니다. 소유자가 안동 김씨 감은사로 되어 있는데 당시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안동 권씨 감은사라고 되어 있어서 소유자명만 변경한 건입니다.

다음은 현 상태 유지하는 15건입니다.

유형문화재 제1호 장충단비 현재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 제23호 도선사 마애불입상 현 상태유지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 제38호 금암기적비, 현 상태 유지하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유형문화재 제39호 약사사 삼층석탑, 현 상태 유지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 제49호 봉천동 마애미륵불좌상, 현 상태 유지입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 제91호 양호거사비, 현재 보호구역이 없는 상태인데 현 상태대로 놔두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 제93호 원지동 석불입상 및 석탑, 현 상태 유지입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 제124호 학도암 마애관음보살좌상, 현 상태 유지입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 제134호 순명비 유강원 석물, 현 상태 유지입니다.

○ ○○○ 위원

잠깐만요. 순명비 유강원 경우 저는 매번 가보면 그 앞에 비석 같은 게 나와서 보호구역에 딱 달라붙어 있어서 사진도 찍을 수 없고 그다음에 거기가 굉장히 훼손되고 있거든요. 지금 ‘ㄷ’ 부분이요. 이것을 그대로 놓게 되면 여전히 그 부분은 문제가 될 텐데, 그것은 그동안에 한 번도 석관이 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닥에서 출토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앞이 곧바로 도로예요. 도로에서 지금 이것을 그대로 두자고 하는 것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데요.

○ ○○○ 팀장

이것은 그러면 추가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재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 제28호 간송미술관 안에 보관되어 있는 삼층석탑입니다. 보호구역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형문화재 제29호 석조팔각승탑, 간송미술관 안에 보관되어 있는 것인데 보호구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 제30호 석불입상, 간송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이것도 현 상태 유지로 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송 안에 있는 유형문화재 제31호 석 비로자나불좌상, 보호구역 없이 현 상태로 되었습니다.

○ ○○○ 위원

문화재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 ○○○ 팀장

예. 다음은 유형문화재 제40호 약사사 석불입상, 현 상태 유지입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 제280호 상부암 석불입상, 현 상태 유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조사하거나 보호구역을 넓히거나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추가조사 후 재상정 하겠습니다.

○ ○○○ 위원

그리고 석 비로자나불좌상 같이 뭔가 명칭이 예전 명칭으로 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봐야 하지 않을까. 굉장히 이상하네요.

○ ○○○ 위원

다른 것은 다 석조로 되어 있는데.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 ○○○ 위원

그리고 한 칸 툼 것도 참 이상하고. 보통은 명칭이 하나로 붙어야 하는데.

○ ○○○ 팀장

그 당시에도 명칭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앞에 ‘석’ 이렇게 해서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 ○○○ 위원장

이게 언제 된 거죠?

○ ○○○ 위원

75년에 지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전체 문화재 명칭에 대한 것이 조금 더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 ○○○ 위원

그런데 같은 날 지정한 게 하나는 석조팔각승탑이고.

○ ○○○ 위원

그리고 하나는 석불입상이고.

○ ○○○ 위원

단순오타 아닌가요?

○ ○○○ 위원

아니에요. 지금 1975년도에 지정한 것인데도 다 명칭상의 문제가 조금 이상해요.

○ ○○○ 위원장

그런데 어떤 위원으로 바뀐 것에 따라서 자꾸만 명칭이 바뀌더라고요. 요새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잖아요.

○ ○○○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